

★ 2월 25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h1>보도자료</h1>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신문규, 사무관 이대영(☎ 044-203-637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도기획연구실장 심한식(☎ 02-3780-9812)
 고사관리실장 허태문(☎ 02-3780-9861)

2014년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 "2014년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이 2014. 2. 25 (화) 11:00, The-K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그랜드볼룸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등 내·외빈과 학위수여자 및 가족, 친지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날 개최된 학위수여식에서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취득자 58,929명을 포함, 총 61,715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 2014년 전기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현황 >

학위수여권자	학위 수여 제도	학위 구분	학위취득자
교육부장관	학점은행제	학사	12,313
		전문학사	45,655
	독학학위제	학사	961
소속 대학의 장	학점은행제	학사	2,545
		전문학사	241
계			61,715

□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생고등교육제도로써 배움의 시기를 놓치거나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기 원하는 개인이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거나, 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제도 시행 이후 '14년 학위 수여자를 포함하여 총 481,400명(학점은행제 학사 232,047명, 전문학사 234,008명, 독학학위제 학사 15,345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 학점은행제(1997년 도입) :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독학학위제(1990년 도입) : 4단계에 걸친 독학학위취득시험을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2014년 학위취득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30~40대, 전문대졸 및 대졸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57,968명 중 84.4%가 여성으로 학점은행제가 고등교육기관[여성비율 42.4%(한국교육개발원, 2013)]보다 여성 고등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경력개발단절 여성의 시장 재진입 준비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 30~40대(66%), 전문대졸(35%) 및 대졸자(30.4%)의 높은 비중은 학점은행제가 직장인 및 기존 학위취득자의 주요 경력개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위수여식에서 최고 영예의 성적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은 학점은행제 김상준(남, 27세, 컴퓨터공학전공), 김숙(여, 53세, 아동·가족전공), 독학학위제 최금희(여, 44세, 유아교육학전공)가, 성적 우수상은 김성윤(남, 34세, 체육학전공) 등 10명이 수상하였다.

□ 또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굳은 의지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은 김광일(남, 69세, 경영학전공) 등 16명이 수상하게 되었다.

○ 교육부장관 특별상은

- 40여년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 공부한 김광일(남, 69세, 경영학전공), 보육교사를 꿈꾸는 3자녀의 여군 엄마 이승연 (여, 34세, 아동·가족전공) 등 2명이 수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은

- 아내 덕에 뒤늦게 학위까지 취득하게 된 남도실(남, 74세, 사회복지전공), 발달장애를 딛고 음악학도의 꿈을 이룬 남승한(남, 24세, 피아노전공) 등 9명이 수상

○ 유관 기관장 특별상은

- 학습 의지로 병마를 이겨낸 군무원 오형근(남, 42세, 자동차공학전공/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등 5명이 수상

※ 수상자 현황 및 수상 사유 : 붙임 참조

□ 한편, 금번 학위수여식에서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식사에서,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들이야말로 진정 행복교육을 몸소 실천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학습을 마친 인간승리자라고 격려하면서,

- 교육부도 오늘 학위수여식의 주인공들과 같이 평생학습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개인의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행복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학위수여식 수상자 현황 및 특이사항 개요 각1부
2.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학위수여 주요 통계 현황 1부
3.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개요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이대영사무관(☎ 044-203-637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명인(02-3780-98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학위수여식 수상자 현황

1. 학점은행제

○ 성적우수상 : 교육부장관상

연번	성명	성별	연령	학위	전공	평균 점수	부문	연락처
1	김상준	남	25세	공학사	컴퓨터공학전공	98.04	최우수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제공(보도자료 배포 부서에 문의)
2	김 숙	여	53세	가정전문학사	아동·가족전공	97.89	최우수상	
3	김성윤	남	34세	체육학사	체육학전공	98	우수상	
4	박요한	남	26세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전공	97.44	우수상	

○ 특별상

연번	성명	학위	전공	수여자	연락처
1	김광일	학사	경영학전공	교육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제공(보도자료 배포 부서에 문의)
2	이승연	전문학사	아동·가족전공	교육부장관	
3	남도실	전문학사	사회복지전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4	남승한	학사	피아노전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5	라○○	전문학사	산업기계정비전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6	서미선	학사(타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7	정봉남	전문학사	사회복지전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8	오형근	학사	자동차공학전공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9	김용수	전문학사	관상원예전공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0	양종한	학사	금속공학전공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1	김호철	전문학사	용접공학전공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2	임경자	학사	사회복지학전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교육부장관 감사장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 2000년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설립, 학생 800명으로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2,000여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서울디지털대학교로 성장 시켰음.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학점은행제 우수교육훈련기관 선정」에서 전체 105개 원격기반 교

육훈련기관 중 학사관리, 교육내용, 기관운영, 국가정책 수용 및 사회적 기여, 콘텐츠·시스템 등 여러 분야의 지표에서 최우수 점수를 득하여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후관리 우수기관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 품질인증,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원격교육훈련기관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원격교육훈련기관의 질적인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2. 독학학위제

○ 성적우수상

연번	성명	전공	평균 점수	수여자	부문
1	최금희	유아교육학	94.83	교육부장관	최우수상
2	김선미	국어국문학	94.5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우수상
3	변기웅	경영학	92.08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우수상
4	김충국	행정학	86.4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우수상
5	오미주	가정학	84.9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우수상
6	정주열	컴퓨터과학	89.58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우수상
7	윤효선	간호학	81.4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우수상

○ 특별상

연번	성명	전공	수여자	학위
1	유천형	국어국문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학사
2	김진호	경영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학사
3	김미현	국어국문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학사
4	권영오	컴퓨터과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학사

□ 특별상 수상자 개인별 특이사항 개요

○ 학점은행제

1 김광일, 꽃보다 경영학 !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교육부장관 특별상 수상자</p> <p>(남, 69, 학사/경영학 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 지난 40여 년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한국 원예산업(화훼, 채소, 과수, 특용작물, 기타) 발전과 종자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 농림부장관상 2번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 1번을 받았으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영학을 이수함. - 학력 : 인천대현공업고등학교 졸업/ 2010년 2월 전북과학대학 디지털영상계열 졸업/ 2012년 3월 동국대학교 전산원 경영학과 입학/ 2014년 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영학사 졸업 예정/ 2014년 3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생명자원학과 친환경원예특작전공 입학예정 - 경력 : (구)취미원예사 설립(채소, 화훼 과수 식량작물 약용식물 기타 종묘 및 농자재 수출입)/ 광일종묘사 설립(경기 용인 육종연구소 설립)/ 사단법인 한국종자연구회 부회장(전), 상임이사/ 사단법인 한국화훼육성협회 상임이사/ 농촌진흥청 신품종 산학연 연구과제 심의위원/ 농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각도원 육종연구소 대학민국 직무육성 신품종 심의위원/ 국립종자원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운영 및 심의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전문분야 전문가(전)/ 사단법인 국민문화연구소 이사/ W.F.C 세계꽃협회의회 한국본부 자문위원(전)/ 충남 안면도, 경기 고양시 국제꽃박람회 유치위원(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크러스트 테마공원 자문/ 삼육대학교 산학연 연구과제 협동위원(전) - 수상 : 1999년 12월 31일 농림부장관상(농림다31168호)/2001년 10월 26일 농림부장관상(우리품종 전시회 금상(제3705호)/2002년 11월 30일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장(제72854호) - 현재직업 : (사)한국화훼종자협회장, 광일종묘사대표


김광일 씨(69, 남, 학사/경영학전공)는 화훼 전문가다. 취미원예사와 육종연구소를 설립하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고양국제꽃박람회 유치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리더십, 소통, 마케팅 등의 필요성을 느껴 동국대 전산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오랜 기간 농업 경영을 통해 경영상의 의사 결정을 위해 경영학, 회계학 지식이나 농산물의 판매나 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경영학을 공부하고자 하였다. 그는 경영학이 경영인의 자질을 올바르게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였고, 실무적인 면에서도 경영인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은 주었다고 생각한다.

만학도인 그는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한다'는 철학의 소유자다. 이런 끈끈함을 바탕으로 89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그는 본인 전문분야인 원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자 건국대 농축대학원 생명자원학과에 입학하기로 했다. 대학원 과정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인 만큼 폭넓은 연구로 농업분야의 지식을 더욱 쌓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석사과정이 끝나면 박사 과정에도 도전할 생각이며, "끊임없는 연구를 펼쳐 우

리나라 친환경 도시농업 및 원예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자 꿈”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원예업 발달사에 대한 저서를 출판할 포부도 가지며 원예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교육부장관 특별상 수상자</p> <p>(여, 34, 전문학사, 아동·가족 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어머니의 임종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여러 직장생활 끝에 의식주가 해결되는 군인으로 입대, 주말부부로 부대 생활을 하며,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 셋을 키우다보니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과 군대내의 또 다른 일터들의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껴져 보육 관련 공부를 시작함 - 학력 : 산본 고등학교 졸업/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예정 - 현재직업 : 중사 - 향후 계획 : 사이버 대학교 3학년 편입 합격하여 상담심리학과 공부 계획

이승연 씨(34, 여, 전문학사/아동·가족전공)의 어린 시절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어머니의 임종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고 어려웠던 가정 형편 탓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군인으로 입대했다.


군대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장군감인 아들 셋을 낳아 키우면서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주말부부로 부대에서 생활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터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를 통해 학점은행제를 알게 됐다.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군대에서 각종 훈련과 부대 생활을 하면서 주말부부로 연년생인 아이 셋을 어린이집 외의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돌보는 것만으로 벅찼다. 그래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에 아이들과 씨름하며,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이른 새벽까지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다. 아이들이 아플 때 특히 그랬다. 하지만 꿈을 꼭 이루고 싶었다.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보고 싶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무사히 보육실습까지 완료했다. 그리고 마침내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이승연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할 계획이다. 보육관련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하게 되었다. 이승연씨의 최종 목표는 군대 내의 육아환경 개선에 한몫을 하는 것이다. 점점 늘어가는 여군들과 그에 따른 부부 군인들의 증가로 군대내의 육아문제는 군의 새로운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군의 특성상 잦은 훈련과 상시 대비태세들로 인해 24시간 혹은 갑작스런 위탁보육 수요가 많다. 부대의 보육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리체계 역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때 자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승연 씨는 2년 여의 시간 동안 컴퓨터만 바라보는 엄마 때문에 컴퓨터를 미워하게 된 큰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합격수기를 적었다고 했다. 이제 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도전의 기회를 준 학점은행제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 수상자</p> <p>(남, 74, 전문학사/ 사회복지 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 2009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내의 일을 도와줄 생각으로 시작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통해 학습에 재미를 느끼게 됨. 그 후 한국역사 전문교육과정,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감. - 학력 : 1964. 1. 23 경남 창녕군 영산 고등학교 졸업/2012. 3. 3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공 입학/ 2014. 2. 19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취득예정 - 자격 : 2012. 6. 21 사단법인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협회 2급 자격취득/ 2012. 6. 22 (사)한국전인상담문화원 미술심리치료사 2급 자격취득/ 2013. 5. 1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2013. 8. 2 한국자격개발원 호스피스 자격취득/ 2013. 12. 6 (사)한국전인상담문화원 아동미술지도사 2급 자격 취득 - 경력 : 1965. 7. 해전화학 공업주식회사 입사/ 1982.11.12 숙명여대 최고관리자 과정 수료 1987 - 1990 주식회사 구산무역 대표이사/ 1997 - 2002 비전빌딩 관리직/ 2010. 1. 20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경기도 보육교사 교육원장) - 향후 계획 :요양보호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서 봉사활동 및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유용함과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자 노력


남도실 씨(74, 남, 전문학사/사회복지전공)는 적지 않은 나이에 사회복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꿈만 같다. 3남매를 키우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부인과 교수님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2009년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인의 일을 도울 겸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공부를 시작해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의 한국역사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수원시 서호노인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학습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는 좋은 교육과정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찾던 중, 부인을 통해 학점은행제를 알게 되었다. 예전부터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있었지만, 학점을 이수하는 기간과 수업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27개 교과목의 수업을 1과목의 과락도 없이 이수하였고, 단 한번도 결석이나 지각·조퇴를 하지 않았다. 2012년 2학기에는 사회복지전공 과대표를 맡아서 공로장학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재학 중 민간자격의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사, 미술심리치료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12년 여름방학에는 노인복지론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160시간의 힘든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요양시설 실습 중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의 자존감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2013년에는 호스피스, 아동미술지도사 2급 민간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이제 남도실씨는 평생학습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체득한 것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되리라 믿는다. 지금 당장 사회복지사로서 취업하여 사회복지사의 책무를 다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요양보호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서 재능기부를 포함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다. 또한, 2014년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유용함과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 수상자</p> <p>(남, 24, 학사/피아노 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 정신적인 문제(발달장애)로 피아노 선생님이 되는 꿈을 포기하려 하였지만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 입학 후 발표회와 연주회를 통해 실력 향상. 조율사라는 새로운 꿈 생김. 전공 교수님들과 선배에게 도움을 받으며 남에게도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으며 삶을 개척할 용기를 얻음. 조그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각계의 전문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하고 있음. - 학력 : 2014년도 전기 학점은행제 음악학사 취득예정 - 경력 : 서울 빈첸시오 자선 음악회 공연(2010년 10월 22일 정동 FRANCISCO회관 대성진)/ 제1회 SAC 젊은이의 음악제(2010년 11월 26일 이원아트홀)/ 제2회 서울종합예술학교 음악예술학부 정기연주회(2011년 11월 11일 힐스테이트홀)/ 제1회 서울종합예술학교 음악예술학부 피아노과 졸업연주회(2013년 11월 7일 싹갯럭시홀)


남승한 씨(24, 남, 학사/피아노전공)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 어린시절에는 장애 때문에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없었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는 피아노 선생님이 되는 꿈을 갖고 있다가 2010년에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 입학해 전공 음악인으로서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후 그는 발표회와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연주자는 아니지만 조율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실용음악, 뮤지컬, 연기, 방송영화, 무용, 패션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어서 재학 중 감성과 표현력이 한층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학교 입학 후에 자선공연, 신입생 연주회, 정기공연 등 많은 공연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전공 교수님들은 사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며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졸업연주회 때 모든 공연이 끝난 후, 교수님과 음악예술학부 학생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장애인 학생들도 피아노를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여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어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일반학생들에 비해 익숙하지 않았던 과제와 시험들이 학기 내내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로 인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노력을 통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점은행제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조그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각계의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전체적으로 좋은 제도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 수상자</p> <p>(여, 39, 학사 (타전공)/사회복지학 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 기계설계전공 후 군복무 등 당당한 삶을 살아가던 중 남편과 이혼 후 딸 아이를 홀로 키우며 한 부모 가정의 혜택 등 사회복지정책에 매력을 느끼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 - 특이사항 : 카페개설 후 500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정보를 주고자 학업에 매진 - 학력 : 경남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창원전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졸업/조선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 (공학사) - 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건강가정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 경력 : 대한민국 공군 부사관 복무 (2002.4.1 ~ 2008.3.31)/ [민원24]체험수기 우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12.6.14)/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경애원) 근무 중 (2011.10.4 ~ 현재) - 현재직업 : 요양보호사 - 향후 계획 :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공부를 계속 하며 ‘편한집’이라는 비영리기관을 만들어 한 부모 가족들과 함께하고 자신의 지식을 나누길 희망

서미선(39, 여, 학사/사회복지학전공)은 여군 출신이다. 전문대에서 기계설계를 전공한 후 입대했다. 군 복무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해 기계공학부 공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버지는 군인이 된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휴가 나오는 딸에게 전투복을 꼭 입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결혼 후 시댁에서는 여군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혼과 함께 제대신청을 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1년을 넘기지 못했고, 이혼을 할 때쯤 군을 떠나야 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이었고, 직장도 친구도 삶도 모두가 패닉 상태였다. 시골로 이사한 후 작은 회사에 입사해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2년을 생각 없이 보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한부모가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사회복지정책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 사회복지에 관한 공부를 시작한 지 4년. 여덟 살인 딸 아이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에 오면 각자의 책상에 앉아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한 후 후회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딸에게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스럽다. 지난 4년 동안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었다. 그녀는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집 근처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을 돌본다. 처음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힘들고 창피했다.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주간과 야간근무를 병행하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여유시간을 이용해 이주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그녀는“이제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과 같은 한부모가정에게 사회에서 주는 혜택이 많다는 걸 알고 인터넷 카페에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카페회원이 500명이 넘었다. 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자 하는 점도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꿈은 비영리기관을 만들어 자신과 같은 한부모가족에게 사회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바자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함께 웃을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 그

너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생각이다. 카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어 가지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보다 지혜롭게 이겨내길 소망하면서 서미선씨는 오늘도 쉬지 않고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 수상자</p> <p>(여, 75 전문학사/사회복지 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 삼남매의 어머니이자 여섯 손자를 둔 할머니로 남편의 죽음 이후 빚에 쫓돌리며 어렵게 자녀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함.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뒤 초·중·고 과정을 모두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대학 학위까지 취득하게 됨. 가게를 운영하면서 공부도 하고, 시도 지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꾸려가고 있음. - 학력 : 일성여자중학교 졸업 (2010. 2)/ 일성여자고등학교 졸업(2012. 2)/ 명지전문대학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전공 졸업예정(2014. 2) - 현재직업 : 가게 경영 - 향후 계획 : 기회가 되면 성악 공부와 문학 공부(시)를 계속 할 예정

정봉남 씨(75, 여, 전문학사/사회복지전공)는 3남매의 어머니이자 여섯 손자를 둔 할머니다. 52세 때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진 남편은 2년 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암담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젊어서 노름을 많이 해 속을 썩이던 남편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허망하게 가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거라곤 아이들 셋과 빚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씨는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나이 50이 넘도록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출가시킨 후에는 마음속에 담아만 두었던 학업에 대한 열망을 따라 양원주부학교에 입학해 검정고시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일성여중과 일성여고를 졸업하고 꿈에도 그리던 대학에 입학했다. 명지전문대 학점은행제에 입학원서를 내고 나오면서 명지전문대학 정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예전에는 누가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라고 하면 가슴이 뛰고 눈앞이 캄캄했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 뭘 쓰라고 해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정씨는“그동안 제게 배움의 길을 인도해 준 많은 선생님, 교수님께 가슴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제 여섯 손자와 손녀를 다 길러주고 아담한 가게를 경영하고 있다. 공부도 계속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어렵고 힘들게 공부한 지난날을 돌아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성악 공부도 하고 시 창작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한다. 남은 삶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꿈이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특별상 수상자</p> <p>(남, 42, 학사/자동차공학 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 대학시절부터 아르바이트 베테랑(TV출연), 야학활동 등 부지런한 생활을 한 학습자로 졸업후 군무원이 되었으나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기능대학 진학 등 끊임 없는 학습의 길을 걸어감. 이 후 본인의 결핵진단, 아이의 백혈병 진단 등으로 삶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기적과도 같이 건강을 회복, 다양한 학습장소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지식공유, 학점은행제 과정 이수 등으로 더욱 도전적이고 긍정적,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됨. - 학력 : 마산중앙고등학교 (1992.2.)/ 경남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1999.2.)/ 폴리텍 VII대학 창원캠퍼스(창원기능대학) 카일렉트로닉스와 졸업(2003.2.)/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자동차공학 학위 취득 예정(2014.2.)/ 경남대학교 대학원 진학(2014년 3월 입학예정) - 자격 :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보처리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자실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2급 - 경력 : 육군 종합정비창 9급 군무원(2000.7.1.~ 재직중)/육군 종합정비창 8급 군무원 승진(2005.1.1.)/육군 종합정비창 7급 군무원 승진(2010.4.1.) - 수상 : 경상남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상: 폴리텍VII 대학 졸업시(2003.2.28.) 수상 (야간과정 성적 최우수)/ 애슬 사랑상(2003.11.9.) ※애슬배움터: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야학 - 현재직업 : 육군종합정비창 7급 군무원

오형근 씨(42. 남, 학사/자동차공학전공)는 공과대학 3학년 때 IMF를 맞았다. 졸업 후 취직을 못하다 육군종합정비창 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15평 규모의 소형 아파트 관사가 제공돼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9급 기술직(전차) 현장 정비업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 기술직 정비업무는 전차를 완전분해하고 조립하는 힘든 공정이었다. 업무에 맞는 실무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동차공학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원기능대학 야간 자동차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실습은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한 결과,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다. 졸업식 때는 야간 다기능 과정 성적 최우수로 '경상남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상'을 받았다.

기쁨과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낮에는 열심히 정비 업무를 하고, 한밤중까지 공부하거나 실습 하면서 식사를 자주 거르며 살던 어느 날, '결핵'진단을 받았다. 이후 6개월간 몸조리하며 건강을 찾아갈 무렵, 2003년엔 아버지가 급성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듬해엔 세 살짜리 큰 아이가 갑자기 토하면서 쓰러졌다. 백혈병이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이는 백혈병 병동에서 2주 만에 퇴원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는 늘 함께 해 준 가족과 동료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이 있었다. 감사했다.

늘 배움의 자세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길 원했던 시간들, 또 다시 몸과 마음을 추수려 학습에 정진하였다. 그는 지난 2009년 창원대 평생교육원 재테크 강좌를 시작으로 이후 문성대, 사설 투자학원, 다양한 모임 등을 통해 재테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인맥을 쌓기도 했다. 2013년엔 학점은행제에 등록했던 자동차 공학을 마저 이수하

고 싶은 욕심도 생겼고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4년제 경남대학교를 졸업했기에, 대학원에 바로 진학해도 되지만 '자동차공학 공학사' 학위를 받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 조금의 경제적 여유가 생겨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는 그는 지금 또 한 번의 캠퍼스 생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대한상공회의소회장 특별상 수상자</p> <p>(남, 57, 전문학사/관상원에 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 6남매 중 장남으로 부모님의 농사일과 선천적 장애를 지닌 아들의 병수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습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였음. - 특이사항 :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산림기술사자격증을 비롯한 6개의 국가자격증을 취득, 1978년 공직에 들어와 모범적인 근무로 안동시장 표창 2회, 경상북도지사 표창 3회, 환경부장관상표창 1회 - 자격 : 2012. 11. 산림기술사 자격증 취득/ 2013. 12.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취득('97. 11 조경산업기사 취득, '99. 12 산림경영기사 취득) - 경력 : 안동시청 근무(산림녹지과) - 수상 : 1984. 12. - 경상북도지사 표창/1992.05, 2001. 07. 안동시장 표창/2003. 12. 경상북도지사 표창/ 2006. 12. 환경부장관 표창 - 현재직업 : 안동시청 산림녹지과 - 향후 계획 : 국제기술사가 되기 위해 노력

김용수 씨(57, 남, 전문학사/관상원에전공)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6남매의 장남으로 부모님의 농사일도 도와드려야 했고, 아들이 중병을 앓게 되면서 대학진학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학습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게 되었다. 7년을 노력하여 제98회 산림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도전은 가치가 있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덜한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에 평가인정학습과목과 시간제등록을 통한 과목 이수를 하였다. 동아리 학습카페에도 가입하고 나이 어린 학우들과의 학습법도 교환하면서 학우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나만의 학습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학우들의 다양한 학업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되면서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식물보호기사 시험도 병행하여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는 국제기술사가 되는 꿈을 안고 있다. 국제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3학년 편입학에 지원하였다. 잠시도 혼자 둘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선을 넘긴 나이에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시험과 대학공부를 위해서 명절이나 휴일 대부분을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보냈다.

그는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실력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행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다 넓은 지식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시민들에게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특별상 수상자 (남, 43, 학사/ 금속공학 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 어릴 적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과 언어, 청각 장애인이셨던 아버님과 생활고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일찍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고된 3D업무로 직장을 그만둔 후 각종자격증 취득, 업무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학점은행제 공부를 시작,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2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함. - 학력 : 1985년 2월 경북 영호초등학교 졸업/ 1988년 2월 경북 안동중학교 졸업/1991년 2월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열처리과 졸업/2013년 8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금속공학과 졸업/2014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재료공학과 입학 예정 - 자격 : 기술지도사(금속), 금속재료기능장, 압연기능장, 제강기능장, 주조기능장,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열처리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 경력 : 1990년 8월 ~ 1997년 8월 대동기어 주식회사(생산팀 열처리반)/ 1991년 3월~1994년 3월 병역 특례 산업기능요원 복무(대동기어 주식회사)/ 2002년 9월~ 2014년 1월 현재 티아이씨 주식회사(열처리팀 검사반)/ 2011년 11월~ 현재 표면처리기능사 국가기술 자격 실기 감독 및 채점 위원/ 2012년 4월~ 현재 금속재료, 열처리 국가기술 자격 시험 출제 및 검토 위원 - 수상 : 2007년 11월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선정(열처리)-고용노동부 장관/ 2012년 9월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열처리)-고용노동부 장관 - 현재직업 : 티아이씨 주식회사 품질관리 부서 열처리 검사 담당 - 향후 계획 : 대학원 진학 후 좀 더 심도 있는 금속공학 공부, 회사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뒤를 따르는 후배들의 기술 지도와 양성에도 힘쓸 계획


언어·청각장애인이셨던 아버지와 생활고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하루빨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양종한 씨(43, 남, 학사/금속공학전공)의 꿈이었다. 공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열처리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장학금을 받았다. 졸업할 때에는 우수상도 받았다. 고3때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방위산업체 열처리반에 입사하여 열처리기능사 자격증으로 병역특례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간 군복무를 대신하는 큰 행운도 얻었다.

병역특례를 마치고 만 7년을 근무했던 첫 직장을 그만둔 이후 어려움을 겪다가 몇 번의 이직을 거쳐 2002년에 품질관리부서인 열처리 검사 담당으로 취직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양씨는 취직 후 곧 담당업무 분야의 상위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개선이 필요한 생산현장과 부족한 열처리 기술로 인한 불량품 발생 때문이었다. 이후 2006년에는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재료기능장을 취득했다. 자격증 취득으로 2007년에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중소기업 우수기능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업무의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과 학점은행제 공부를 시작으로 금속재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노력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얻게 된 부가적인 성과도 컸다. 2011년에는 표면처리기능사 실기·채점 감독위원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금속재료, 열처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시험 출제·검토위원에 선정돼 자격증 취득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활용하고 있다. 이후 학점 취득을 위해 2012년에는 압연기능장과 기술지도사(금속)를 취득하였다. 기술지도사 자격증 취득으로 전공학점으로 45학점을 인정받았고, 2013년에는 제강기능장과 주조기능장을 취득하는 등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었다.

고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 졸업에 대한 미련이 항상 있었다. 2010년 11월에 자격증으로 학점을 모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등록했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지 만 2년 6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2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갈고 닦은 기능실력과 고생 끝에 취득한 자격증이 자랑스럽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특별상 수상자</p> <p>(남, 42, 전문학사/ 용접공학 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 고등학교 졸업 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용접일을 하면서 용접인생이 시작되었음. IMF를 맞아 직장을 잃고 더 많은 용접기술을 접하게 됨. 건설회사 동료의 감언이설에 속아 하청을 시작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동료의 기만으로 다시 무직으로 전락함. 다시 입사하게 된 회사 사장님의 지원으로 일과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자격증, 기능대회에 출전. 도전정신을 키워가며 용접기사로서 다양한 수상을 하게 됨. - 학력 : 경북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졸업 - 수상 : 2009년 제13회 전국용접기능경기대회 단체전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2010년도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용접부문 5위 우수상 수상/ 2012년도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용접부문 3위 동상 수상/ 2012년도 제16회 전국용접기능경기대회(뿌리기술경연대회)동상(중소기업중앙회장)수상/ 2013년도 제17회 전국용접기능경기대회(뿌리기술경연대회) 금상 (고용노동부장관)수상 - 현재직업 : 해군정비창 선체2직장 선체8반 용접 7급

김호철 씨(42, 남, 전문학사/용접공학전공)는 특정직 용접 군무원으로 용접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는 전기전공이었지만, 용접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군 제대 후 건설현장을 거쳐 회사에서 용접 일을 계속 하였다. 그러던 중 동료의 권유로 시작한 스테인리스 구조물의 하청에서 사기를 당해 실직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해 군무원의 꿈을 키웠다.

이후 용접접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군무원 응시자격을 따고, 기능대회에 출전하는 등 용접의 전문가로서 노력을 계속해왔다. 김씨는 비파괴관련 자격증을 준비해 2013년도 전반기 기사, 산업기사를 목표로 틈틈이 공부해 2013년도 1회 기사, 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어 용접전국대회에 지원해 산업체 금상인 노동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상사가 학점은행제를 권유하여 교양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전공학점은 틈틈이 취득해 놓은 용접기능장과 침투비파괴검사 기사로 학점 인정을 받았지만, 잦은 야근과 술자리 등으로 강의를 듣기 어려웠다. 결국 강의 듣는 시간을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새벽 5시에 듣는 걸로 혼자 정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강의를 꼭 듣고 출근하고, 주말이면 듣지 못한 강의를 듣고 학습량이 미흡한 부분은 재차 공부를 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퇴근 후 파김치가 된 몸으로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학위 없어도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만 둘까 생각도 했다.

나름대로 준비해 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 학점 결과 나오는 날, 21학점을 무사히 인정받고 꿈에도 그리던 용접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여기에 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지만, 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에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고 가정을 이루고 나의 이름 석자를 알리게 한 용접 기술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상 특별상 수상자</p> <p>(여, 44,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전공)</p>	<p>- 가정환경 : 6명의 동생과 부모님 위해 고졸 후 학업을 포기, 플로리스트로 생활하며 각종 대회에 수상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감. 꽃으로 행복한 삶을 살며 꽃이 꿈을 이루게 해주었다고 믿고 늙어서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학을 선택하게 됨.</p> <p>- 학력 : 충청남도 충일 여자고등학교 졸업 김포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2011년 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 취득예정 (2014년 2월)</p> <p>- 경력 : 1990. 01 - (사)한국꽃꽃이 협회 입문/ 1995. 02 - 오면꽃예술원 대표/ 2005. 09 - 국제여성영화제 꽃장식/ 2006. 10 - EBS 맞추 출연/ 2007. - EBS 직업의 세계 방송 출연/ 2009. 09 - 現 오면꽃예술학원장 취임/ 2009. 10 - 주한 독일대사관저 꽃장식/ 2010. 08 - (사)한국꽃꽃이 협회 예담꽃예술 중앙회 회장/ 2011. 04 - 제13회 IHK컵 플라워경기대회 심사위원/ 2011. 10 - 화훼장식기능사 심사위원/ 2013. 01 - (사)한국꽃예술 협회 교육이사/ 2014. 01 - KBS 꽃장식 담당</p> <p>- 현재직업 : 플로리스트</p> <p>- 향후 계획 : 플로리스트라는 직업과 활용하여, 꽃을 이용한 심리치료(원예치료)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p>

임경자씨(44세, 행정학사/사회복지학전공)는 전라도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늘 꿈을 잃지 않았다. 고정 수입이 없는 부모님은 여섯 남매를 키워내며 끼니를 먹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다. 그런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 보란 듯이 성공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난의 꼬리표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고 고졸 출신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서러움이 복받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대학에 진학하고자 굳게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다.


결혼 후에도 꽃이 있었기에 늘 행복했던 그녀는 신림동에서 노점을 해가며 결국 작은 꽃가게를 꾸릴 수 있었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대학진학은 물론 각종 경기대회에서 수상도 하게 되었다.

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2년 동안, 왕복 4시간의 거리를 통학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말 바쁘고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이었다. 그렇지만 25년째 플로리스트로서 일하면서 늙어서도 꽃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벅찬 시간들이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그녀가 꿈꾸었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스스로에게 너무 대견하고 고맙다고 말하며, 10월에는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며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병들고 소외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플로리스트 직업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그녀는 진정한 꽃의 여왕이다.

○ 독학학위제

1

유천형, 60년 만에 취득한 학위 !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 수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 최고령자(1935년7월생) - 학력 및 경력 : 서울대 농대 중퇴, 서울 신탁은행 정년퇴임→안산문화원장(퇴직) - 학습 : 2008년부터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2013년 4단계 첫시험에 합격 - 향후계획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진학(한문학)목표로 준비 중 <p>◎독학학위제 학습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합격(2009, 2012) : 1단계 3과목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2008~2011) : 1단계 2과목, 2단계 6과목, 3단계 6과목

유천형 씨(78, 남, 학사/국어국문학전공)는 2013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다. 1935년 경기도 안산의 농촌에서 1남5녀 중 외아들로 태어난 유천형씨는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6·25사변으로 집이 전소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병환으로 18세 때 아버지를 잃었다. 집안사정이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친척들은“어떻게든 공부는 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집에서 8킬로미터 거리의 안양공고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하루 4시간을 걸어야 했다.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공부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등하교시간에 영어 단어를 쪽지에 적어 외우기도 하는 등 자신만의 노하우로 학창시절엔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했었지만 어머니와 친척들은“그래도 대학에 가야한다”며 격려해 주었다. 그 격려에 힘을 입어 공부를 계속 해 왔고, 6·25 사변 때 전소된 집터를 매각해 농사를 도우며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서울대 농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1년은 겨우 버텼다. 그러나 2학년이 되자 등록금 마련이 불가능했고, 중퇴를 하고 입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대 후에도 당시 보통고시 통신 강의록을 1년 동안 구독하면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64년에는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 동안엔 안산문화원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홀로 역사를 공부했으나 독학으로는 역사에 관한 깊은 연구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대학원에 진학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학위제도를 알게 되었고, 2년간의 노력 끝에 국어국문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조선후기 역사를 연구할 계획이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게 그의 꿈이기 때문이다.

유천형 씨는“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이번 합격의 영광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준 국가평생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여러 이유로 학습기회를 놓친 사람이나 퇴직자들에게 자기계발과 성공적 노후를 위해 독학학위제에 도전해 보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 수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장애인(시각장애인1급),군복무 중 발병 - 학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3년 수료(발병 이전) · 대구 광명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제적(1993~1998) - 자격취득사항 : 사회복지사1급 - 경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장, · 前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前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팀장 - 학습목적 : 복지관운영(직원35명으로 지역 장애인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습 <p>◎독학학위제 학습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합격(2011~2013) : 2단계 3과목, 3단계 2과목 · 경북대학교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점은행제 105학점 이상으로 4단계 응시요건 충족

김진호 씨(57, 남, 학사/경영학전공)는 1975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 후 전 투경찰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원인불명의 희귀한 눈병이 생겨 '실명 우안'의 최종 진단을 받고 전역하였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실명에 절망하다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대구 광명학교에 입학하였다. 처음엔 생소하고 힘들었지만, 점자를 배우고 이동방법인 보행과 그들의 직업인 침과 안마를 배우면서 재활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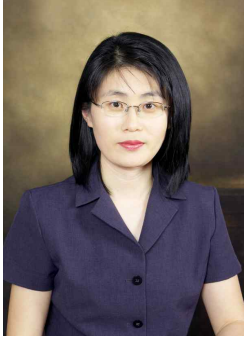
이후 시각장애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결혼도 하게 되었다. 장애극복 방법으로 컴퓨터가 가진 가능성 때문에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한국방송통신대학 전자계산학과에 편입을 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는 소식도 들었고,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면 시각장애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녹음기와 점자책뿐이었다. 학우들의 따뜻한 관심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23학점 정도는 취득했으나 전공과목은 눈으로 보지 않고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서 공부를 차츰 멀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9년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의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평생교육과 독학사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평생교육 제도는 발전하여 학위취득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학습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으로 변모되어 시각장애인도 과거보다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는 이런 현실을 이해하자 학업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되살아났고 다시 한 번 도전을 결심하였다. 학점은행제의 인터넷 강의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독학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진호씨는 복지관 관장으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경영학과를 선택하였다. 관장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 직원들도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여 직원 중 5명이 석사학위 소지자가 되어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 몇 명에게 독학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부 시각장애인 2명이 독학사 과정을 시작해 그 중 한명은 2013년 2월에 국문학사를 취득하여 소원을 풀었다는 자랑을 듣기도 하여 뿌듯하였다.

김진호씨는 독학사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석사학위까지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학사를 마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석사과정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한다. '경

영학 학사'를 취득해서 본인도 뿌듯하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그는“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평생 간직한 마음의 짐을 이제야 내려놓게 되었다”며, “86세이신 어머니의 묵은 소망도 풀어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 수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1999년부터 5명의 아들(현재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입양 - 학력: 백석예술학교 유아교육학 전공 - 경력: 하늘생각어린이집시설장(~2008), 현재 주부 - 학습사항: 2013년도 독학학위제 포함 아래 사항동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문학사 취득(2013/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합격(제2회) - 학습목적: 자녀들의 학습모범이 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자녀들과 학습함. <p>◎ 독학학위제 학습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합격(2013): 1단계(4과목), 2단계(6과목), 3단계(6과목)

김미현 씨(39, 여, 학사/국어국문학전공)는 사춘기 아들 다섯 명을 키우고 있다. 1999년부터 한 해에 한 명씩 가슴으로 아들을 낳기 시작해 다섯 아이들과 입양가정을 이룬 엄마로 살고 있다. 김 씨도 처음엔 여느 엄마처럼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했다. 그러던 중 출산수범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하고 ‘아이들 옆에서 책 읽는 엄마, 공부하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정주부로서 유동성 있는 시간, 학업에 드는 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엄마로서 무기력하게 타성에 젖어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은 열망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든 독학학위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여러 제약이 많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학업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소중한 제도였다.


어릴 적 책읽기를 좋아하던 김 씨는 국어국문학에 도전하기로 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년 9월,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을 하고 난 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사회복지 전공과목 15과목을 1학기에 8과목, 2학기에 7과목으로 나누어 1년 동안 이수했다. 2급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학점 80점 가운데 45점은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획득했다. 나머지 35점은 독학사 1~2단계를 합격해 획득했다. 두 학기 만에 사회복지 전문학사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땀과 2학기가 마무리되는 2013년 6월부터는 독학사 3단계 전공심화과정에 몰두해 국어국문학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다.

국문학 공부는 즐거웠다. 많은 문학작품을 시험범위로 여기지 않고 즐기면서 시험준비가 주는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학위취득 시험장에도 처음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향하면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갔다.

“엄마, 이제 4단계까지 합격했으니 다 끝난 거야?” 아이들의 물음에 김 씨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거”라고, “너희들이 아직 배울 것이 많이 남았듯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김 씨는 독학사 제도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열과 성을 다한 후 느낀 성취감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배움이라는 소중한 친구와 함께 더욱 정진할 것”이라는 김 씨는 “30대 후반에 도전의 기회와 장을 마련해준 독학학위제가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성명	특이사항 요약
 <p>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특별상 수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해 군잠수함(나대용함)승조원중사. - 학력 : 기장고등학교졸업 - 자격 : 3급항해사, 정보처리산업기사-기사, 소형선박조종사, 건축도장기능사 - 학습동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를 벌기 위하여 부사관 임관하였으나 군생활에 적성이 맞아 직업군인으로 재직 중 · 군생활 적응 후 마치지 못한 학업에 본인 및 부모의 아쉬움, 지인의 제도 소개 · 잠수함 승조원 여건상 학습관련 장소, 시간제약이 많아 독학학위제가 최적이었음 - 정보처리기사로 3단계 면제. 직업특성상 독학으로 2009년부터 응시. 5년 동안 학습. - 향후 계획 : 독학학위제영어영문학학위도전 <p>◎독학학위제학습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기사 취득으로 3단계 면제 · 과목별 합격제 : 2009년 1과목, 2011년 1과목, 2012년 2과목, 2013년 2과목

권영오 씨(30, 남, 학사/컴퓨터과학)는 해군 잠수함 승조원이다. 1년에 200일 이상을 바다 속에서 지낸다. 전화도 인터넷도 할 수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걸까?

대학 입학 후 캠퍼스 생활을 즐기던 권영오 씨는 바다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잠시 도와드리던 중 부모님 땀방울을 보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다. 그때 결심했다. ‘적어도 학비만큼은 내가 벌어야겠다.’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휴학을 감행했다. 그리고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의외로 해군 부사관은 권씨와 너무 잘 맞는 직업이었다. 용기를 내어 잠수함 승조원으로 지원한 결과 현재는 잠수함에서 근무 중이다. 어느 정도 군 생활에 익숙해지고 생활도 안정될 무렵, 불현 듯 마치지 못한 학업에 대한 아쉬움이 가슴 한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부모님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권씨도 알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한줄기 빛을 보여준 주인공은 지금은 부인이 된 당시 여자친구였다. “독학사를 준비해봐.” 마침 군 생활 중 취득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덕분에 3단계까지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4단계 6개 과목만 합격하면 되었다. ‘해 볼만 하겠는 걸?’ 특유의 끈질김과 목표의식이 유달리 강했던 권 중사는 독학사 취득에 이끌렸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독학사 시험이 그리 만만한 시험이 아니어서 6개 과목을 마치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일반 자격증 시험과 같을 리 만무했으며 더 심도있는 전문성을 요한 것이다. 2009년에 처음 도전해 마침내 2013년 학위 취득에 성공했다.

1년에 절반 이상을 바다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사이버학습이나 스터디 모임 등은 언감생심이었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법! 교재를 구입해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권영오씨는 “저처럼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독학학위제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며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자격증이나 기타 취득학점으로 과정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한데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독학학위제야말로 군 복무와 자기계발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혼자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생긴 목표와 도전의식은 권 씨에게 '설렘'을 선물했다. 컴퓨터과학 학위를 취득한 그는 학습의 설렘에 중독되어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그는 곧 “독학사로 영어영문학사에 도전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권영오 중사의 선전을 기원한다!

〈붙임 3〉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주요 통계 현황

□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현황 (199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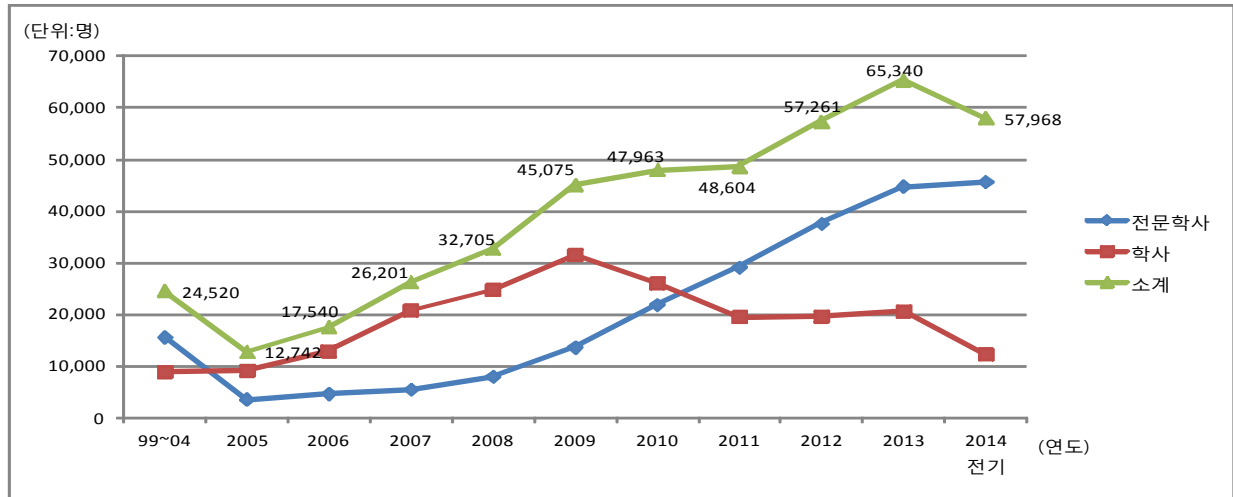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199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학 사	52,135	30,647	39,146	51,033	58,096	61,283	56,772	59,338	60,420	60,563	529,433
전문학사	65,409	11,458	12,376	18,022	25,073	34,237	39,802	62,087	73,351	83,991	425,806
계	117,544	42,105	51,522	69,055	83,169	95,520	96,574	121,425	133,771	144,554	955,239

○ 학위수여자 현황 (1999~2014. 2)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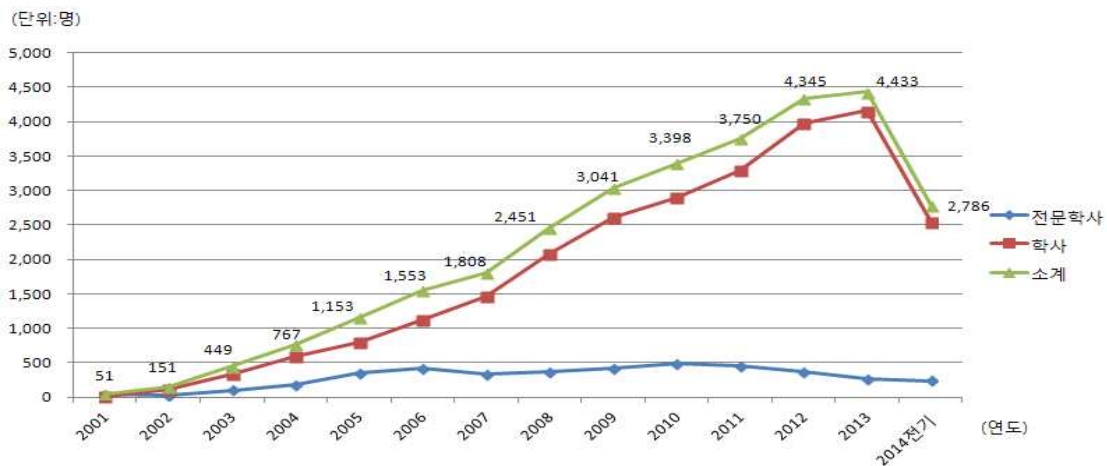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학 사	8,915	9,193	12,883	20,708	24,748	31,442	26,051	19,478	19,690	20,589	12,313	206,010
전문학사	15,605	3,549	4,657	5,493	7,957	13,633	21,912	29,126	37,571	44,751	45,655	229,909
계	24,520	12,742	17,540	26,201	32,705	45,075	47,963	48,604	57,261	65,340	57,968	435,919

※ 2014년은 전기 학위 수여자만 대상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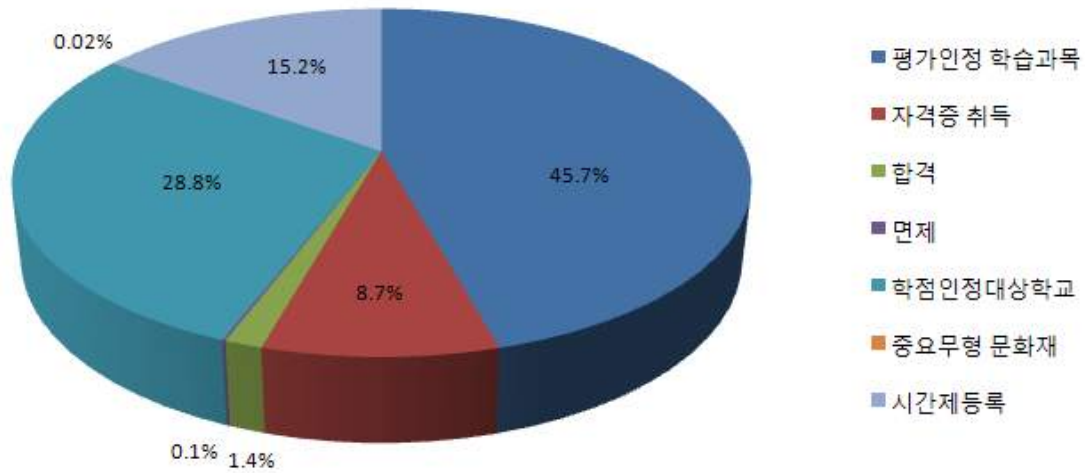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학 사	9	123	343	589	800	1,126	1,469	2,086	2,616	2,902	3,291	3,978	4,160	2,545	26,037
전문학사	42	28	106	178	353	427	339	365	425	496	459	367	273	241	4,099
계	51	151	449	767	1,153	1,553	1,808	2,451	3,041	3,398	3,750	4,345	4,433	2,786	30,136

※ 2014년은 전기 학위 수여자만 대상

○ 학점인정 현황 (1999~2013)



(단위 : 명, %)

연도	학점원별 인정 학점							계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 득	독학사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 수	중요무형 문 화 재	시간제 이 수	
			시험합격	면제과정 이수				
1999	142,852	18,849	646	-	20,039	-	-	182,386
2000	206,433	42,883	1,259	-	111,917	-	19,610	382,102
2001	441,444	97,013	2,682	3,232	156,367	-	24,571	725,309
2002	540,201	106,879	2,437	14,388	170,222	280	26,079	860,486
2003	823,301	212,241	966	3,068	350,450	1,061	53,804	1,444,891
2004	792,691	296,665	14,261	10,610	562,088	820	129,936	1,807,071
2005	952,993	504,443	74,242	11,184	1,029,316	985	362,457	2,935,620
2006	1,105,388	620,634	52,301	6,492	1,800,639	547	524,919	4,110,920
2007	1,428,662	773,799	57,733	7,953	1,971,501	970	793,490	5,034,108
2008	1,630,988	611,545	61,776	7,321	2,074,435	625	1,229,633	5,616,323
2009	1,852,672	492,538	83,157	5,088	1,777,623	1,196	2,028,978	6,241,252
2010	2,249,800	373,264	93,468	3,532	1,765,356	1,122	1,988,179	6,474,721
2011	3,772,465	368,435	122,840	3,482	1,921,036	419	1,070,129	7,258,806
2012	5,147,678	365,940	145,142	3,075	1,838,107	452	482,053	7,982,447
2013	6,224,079	322,716	123,685	2,985	1,695,123	555	357,823	8,726,966
계	27,311,647 (45.7%)	5,207,844 (8.7%)	836,595 (1.4%)	82,410 (0.1%)	17,244,219 (28.8%)	9,032 (0.1%)	9,091,661 (15.2%)	59,783,408 (100.0%)

○ 성별 학위취득자 현황(2014년 전기 교육부장관학위)

(단위 : 명)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전문학사	4,338	41,317	45,655
학 사	4,702	7,611	12,313
계	9,040	48,928	57,968

○ 연령별 학위취득자 현황(2014년 전기 교육부장관학위)

(단위 : 명)

구 분	~24세 이하	25세~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전문학사	4,186	4,438	19,168	14,228	3,635	45,655
학 사	1,991	4,200	3,165	1,874	1,083	12,313
계	6,177	8,638	22,333	16,102	4,718	57,968

○ 최종학력별(2014년 전기 교육부장관학위)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2년)중퇴	전문대학 (2년)졸업	전문대 재학	전문대학 (3년)중퇴	전문대학 (3년)졸업	대학교 재학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전문 학사	12,062	668	13,804	-	76	698	-	1,350	15,897
학사	1,932	313	3,050	-	78	2,512	-	1,871	1,716
계	13,994	981	16,854	-	154	3,210	-	3,221	17,613
구분	학력인정교 졸업	학력인정교 중퇴	외국고교 졸업	외국전문대 학졸업	외국대학교 졸업	학점은행 전문학사	학점은행 학사	독학학위제	계
전문 학사	37	2	87	26	113	325	486	24	45,655
학사	12	3	31	2	12	631	139	11	12,313
계	49	5	118	28	125	956	625	35	57,968

□ 독학학위제

○ 연도별/ 전공별 학위수여자

(단위 : 명, 2013. 2. 기준)

연도 전공	199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국 어 국문학	843	91	109	110	75	88	77	81	106	78	108	94	144	99	2,103
영 어 영문학	815	118	136	132	142	96	104	104	110	139	166	238	222	214	2,736
중 어 중문학	8	2	2	2	4	2	2	0	0	0	1	0	0	-	23
경영학	442	39	62	67	34	44	36	50	42	35	38	45	51	54	1,039
법 학	409	79	64	30	35	41	58	67	29	26	37	54	41	32	1,002
행정학	358	40	66	38	25	19	18	29	33	14	11	20	19	22	712
유 아 교육학	633	125	142	168	83	123	237	223	149	90	69	54	51	99	2,246
수 학	16	1	1	0	1	3	0	2	0	0	0	2	0	-	26
가정학	477	78	127	113	71	47	59	56	46	45	56	49	54	59	1,337
컴퓨터 과 학	1,208	154	138	170	93	94	68	82	64	26	63	51	66	70	2,347
정 보 통신학	-	-	-	-	-	-	-	-	-	-	-	-	-	2	2
농 학	23	5	2	3	1	3	1	0	2	0	0	0	0	1	41
간호학	151	23	55	111	39	50	48	84	98	88	193	180	302	309	1,731
계	5,383	755	904	944	603	610	708	778	679	541	742	787	950	961	15,345

〈붙임 4〉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개요

□ 학점은행제

○ 개요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방형 평생학습제도이다. 고등교육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학점취득방식

학점은행제 학점취득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 및 전수교육, 자격취득, 시간제등록 이수, 독학학위제 시험 및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 이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이다. 학위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교)의 장이 수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학사 학위의 경우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의 경우 전공 및 교양 학점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학점인정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학위수여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수여요건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②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학점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⑥	해당대학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표준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과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에 안내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위종류 및 전공, 전공별 전공과목, 교양과목, 학점수, 수업시수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표준교육과정에는 24개 학사학위 109개 전공과 13개 전문학사학위 109개 전공이 고시되어 있다.

○ 평가인정

평가인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인정 방식

으로는 학습과목 평가인정, 원격교육(학습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평가인정 등이 있다. 평가인정대상기관에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시설이 해당된다.

□ 독학학위제

○ 제도 개요

- 독학자들에게 4단계에 걸친 독학학위취득시험을 통하여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 개인의 자아실현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케 하기 위함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0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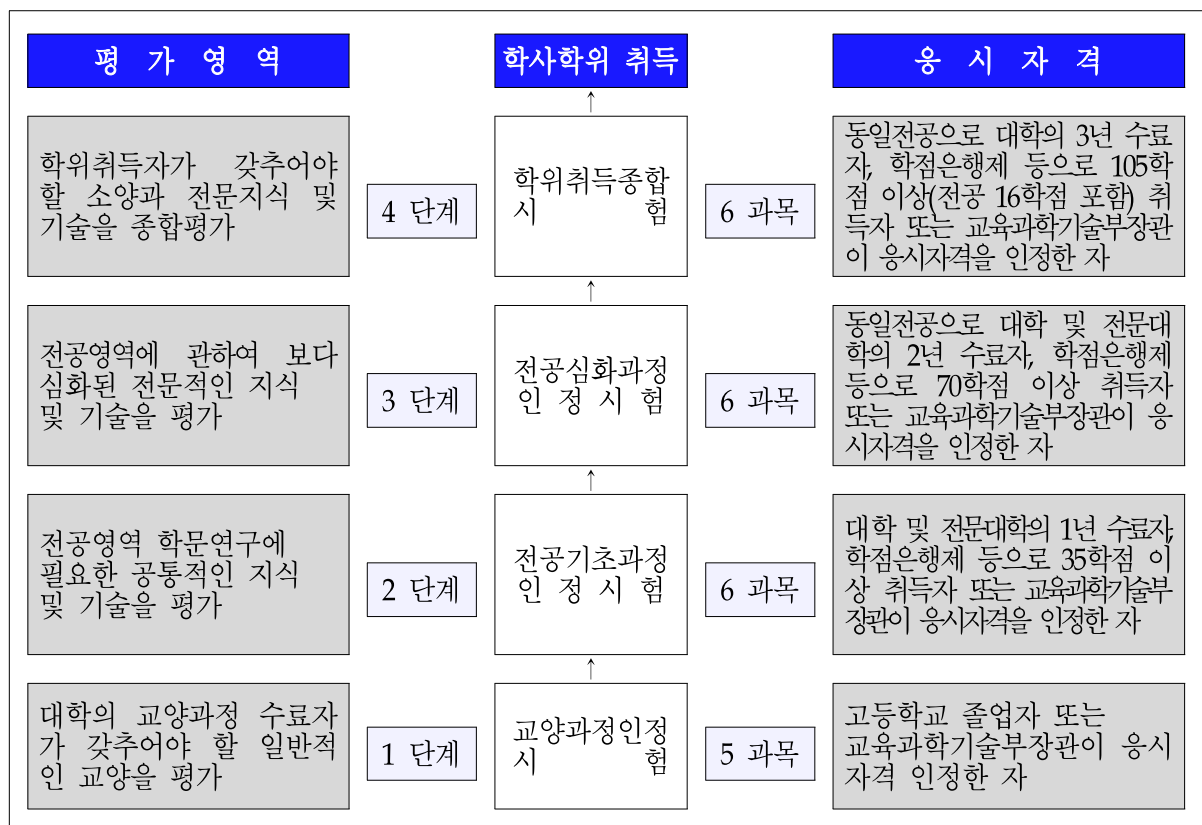
- 전공분야 : 10개 분야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 정보통신학 전공은 2013년 신설

※ 폐지된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기존 학적보유자만 응시가능함

- 응시자격 및 학사학위 취득과정



※ 제3단계까지는 시험합격(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이나 면제과정 이수 또는 시험 면제를 단계별 합격으로 인정하며,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 총점의 6할 이상 득점 시 최종합격으로 인정